

시리즈 웹드라마의 서사 확장 모델에 관한 연구

: <연애플레이리스트>에서 삼각관계 모티프를 활용한 모듈화 전략을 중심으로

손소희(주저자)*, 이동은(교신저자)**

국문초록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캐릭터는 스토리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안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여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인간이 스토리를 확장하려는 노력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한 시도다.

그런데 유기체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처럼 이야기 자체도 유기체적 성질을 지녀 본질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이야기의 진화는 미디어적 특성에 따라 주로 올드미디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웹드라마인 <연애플레이리스트>는 미디어가 가진 특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폴리버스(Polyverse)'의 시초로 그 세계를 확장하는 시도를 보인다.

<연애플레이리스트>는 인간이 자신의 파트너를 지키기 위해 진화시킨 질투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인물 간 관계에서 경쟁과 선택 구도의 삼각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그 세계를 확장해간다. 작품 속 캐릭터는 사랑과 우정을 진동하며 다양한 삼각관계를 정립한다. 삼각관계는 인물끼리 관계를 새로 맺도록 돕기도 하고 기존 인물 간의 관계에 변동을 주기도 하고 인물이 지닌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다층적으로 그려 나아가 이야기를 넓히는데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애플레이리스트>가 삼각관계 모티프를 모듈로 활용하여 스토리를 확장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웹드라마, 스토리 세계, 시리즈 서사, 스토리 모티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과 박사 과정, sso33@hanmail.net

**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부교수, delee@catholic.ac.kr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웹드라마가 캐릭터 간의 삼각관계 모티프를 활용하여 세계관을 확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그 모듈화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캐릭터는 스토리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안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여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스토리는 기본 단위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그 세계를 확장해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왜 이야기는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것일까? 인간은 왜 이야기의 종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세계를 지속해서 유지하려는 것일까?

산업적 측면에서 스토리의 다발적인 확산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므로 인간이 이야기를 확장하려는 태도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야기도 미디어가 살아남기 위해 재매개를 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혀서 오래도록 생존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유기체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처럼 스토리 역시도 유기체적 성질을 갖고 자생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스토리의 진화는 시리즈 서사를 만들고 나아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진화하는 스토리는 주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소설, 만화 등 올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된다. 뉴미디어인 웹드라마에서는 이야기의 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웹드라마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낵컬처로 소비되는 웹드라마는 콘텐츠가 10분 내외로 길이가 짧고 스토리가 단발적이다. 이야기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확산성을 지닌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웹드라마는 미디어 특성상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드라마 제작사인 플레이리스트(Playlist)는 플리버스(Plyverse)라는 거대 세계관을 제작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시도한다. 그 초석을 다진 작품이 바로 <연애플레이리스트>이다. <연애플레이리스트>는 2017년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유통되어 시즌 4까지 제작되었다. 지속성과 확산성을 갖기 힘든 웹드라마가 스토리의 확장을 시도한 것은 드물며 그와 관련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애플레이리스트>가 스토리를 확장하는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애플레이리스트>의 삼각관계 서사 분석

<연애플레이리스트>에서 보여주는 인물 간의 관계는 스토리가 확장될수록 다층적으로 확대된다. 서사가 진행되면서 캐릭터 간의 관계 역시 계속해서 넓어지는데 이때 일관적으로 활용하는 장치가 있다. 바로 경쟁과 선택 구도의 삼각관계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

랑과 우정을 진동하며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질투라는 인간의 위험한 열정이 경쟁을 촉발하거나 상대방을 향한 감정을 확신하게 만들어 그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돕는다. 질투는 파트너의 성적 배신행위를 감지하고 경쟁자가 파트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진화한 감정이다. <연애플레이리스트> 속 인물은 사랑과 질투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그들의 관계와 스토리를 확장해간다.

1. 사랑과 우정을 진동하며 스토리의 기반을 다지는 삼각관계

시즌 1의 서사 모델의 핵심 키워드는 ‘우정을 빙자한 사랑’이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숨기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들로 인해 중심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캐릭터는 그가 유지하고 있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질투를 발동한다. 이로 인한 경쟁 구도는 삼각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캐릭터 간의 관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이현승과 정지원이다. 두 사람의 주변에는 현승의 ‘음음음’ 동아리 친구들인 한재인, 김민우, 박준모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원은 현승의 유일한 이성 친구인 재인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녀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 지원에게 재인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언니가 너무 예쁜 거야!”라고 여길 정도로 자신보다 성적 매력을 더 많이 가진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불안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남성이 자식의 번식을 위해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심리적 기제를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원은 본인이 가진 불안을 현승에게 어필하고 그가 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도록 파괴적인 성적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 가능성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자친구가 불러일으킨 현승의 죄의식은 그가 지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스토리는 그녀가 가진 불안감을 점점 확대시켜 이야기의 외연적 확장을 모색한다.

한편, 재인 역시도 현승을 짝사랑하며 지원과의 경쟁 구도에 참여한다. 그녀는 지원이 질투할 만큼 현승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재인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연애를 방해하지 못하는데 인생에서 처음 생긴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바람과 그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욕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여사친이라는 안전한 우정 뒤에 숨어서 현승에게 사랑이라는 이성적인 감정을 품는다.

재인과의 경쟁 구도에서 지원은 질투로 인한 불안을 키우고 이에 피로를 느낀 현승은 파트너에게 결별을 고한다. 두 사람이 이별한 틈 사이로 재인은 현승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을 비추는데 오히려 그것은 현승에게 지원을 향한 미련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결국, 두 여성의 경쟁은 현승이 지원을 선택하고 재인이 패배하면서 마무리된다.

1) <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 1 에피소드 5 ‘남친의 여사친이 신경 쓰인다’ 지원의 대사 중에서

지원과 현승, 재인이 투입형 삼각관계를 형성하였다면 민우는 그의 친구들과 일방향적인 삼각관계를 보인다. 민우는 재인을 짝사랑하면서 동시에 현승을 향한 그녀의 감정도 눈치챌지만 그들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사랑과 우정의 경계선을 지킨다.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인물의 욕망은 일방적으로 흐르며 네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경쟁 구도에서의 확실한 승패로 스토리의 안정적 확장을 돕는 삼각관계

시즌 2에서는 ‘확실한 승패’를 키워드로 서사를 진행해나간다. 시즌 1의 중심 서사를 이끌었던 현승과 지원 커플에게 새로운 방해자가 등장하고 지원과의 경쟁 구도에서 패배했던 재인에게 다른 인연이 찾아오면서 폐쇄적이고 일방향이었던 삼각관계에 변형이 찾아온다. 그로 인해 단층의 사다리꼴이었던 경쟁 구도가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시즌 2에서는 현승과 지원 사이에 승혁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나면서 지원을 사이에 둔 두 남자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 현승은 은연중에 끊임없이 지원과 승혁의 사이를 경계하는데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전술은 배우자에게 배신할 낚시를 탐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배우자에게 연적과 어울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다.²⁾ 이에 더해 현승은 시즌 1에서 지원이 자신에게 죄의식을 유발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질투를 표현한다.

하지만 경쟁 구도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진 현승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지원과의 결별을 선택한다. 현승이 스스로 경쟁자와의 대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경쟁을 해소한 것이다. 승혁은 시즌 1의 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의 결별로 발생한 틈 사이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원이 최종적으로 정서적으로 더욱 친밀한 현승을 선택하면서 세 사람 사이에 형성되었던 투입형 삼각관계를 해소한다.

승혁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더해 윤이라는 인물이 또 다른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캐릭터 간 관계는 다층적으로 확장된다. 시즌 1에서 중심 서사의 변두리에 위치했던 윤은 시즌 2에서 재인과 가까워지면서 그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삼각관계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윤은 재인과의 연애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구애하는데 재인은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윤을 좋아하게 되지만 자신의 감정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내비치는 자신의 후배에게 윤과의 소개팅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소개팅 이후 윤의 구애가 그치자 재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와의 연애를 시작하면서 후배와 형성한 경쟁 구도에서 승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우의 짝사랑은 실패한다. 그는 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자 다짐하지만 그보다 먼저 윤이 재인과의 연애를 공개적으로 알려 포기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짝짓기 진화 과정에서 파트너를 향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동성 경쟁자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다름없

2) 데이비드 버스, 전중환 옮김, 『욕망의 진화』, 사이언스북스, 2007, 274쪽.

다.³⁾ 결국 그는 재인과 윤의 밀도 높은 관계를 경험하고 윤과의 경쟁 구도를 해소한다.

한편, 음음음 동아리의 회장인 준모에게도 사랑이 찾아온다. 그는 동아리 신입부원으로 들어온 도영에게 첫 만남부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지만 경제 사정이 부유하지 않은 그녀에게 연애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도영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 다가오는 준모를 밀어내지만 그는 외부 위협인 가난에 무심하게 반응한다. 결국 도영은 그녀에게 보여주는 그의 진정한 모습에 준모를 향한 본인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한다.

3. 인물 간 관계에 불안을 극대화하여 스토리에 변형을 꾀하는 삼각관계

시즌 3의 서사모델의 핵심 키워드는 ‘방해’이다. 시즌 3에서는 경쟁자가 자신의 파트너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한 경쟁 구도를 구조화하면서 스토리를 확장한다.

시즌 1에서부터 안정과 불안을 진동하던 현승과 지원의 관계는 결국 시즌 3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치달는다. 연인 사이였던 현승과 지원이 결별하면서 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즌 2에서부터 경쟁했던 현승과 승혁 모두 지원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녀 이별 후에도 세 사람은 삼각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들로 인해 스토리는 이전에는 그리지 않았던 결별 이후라는 새로운 성격의 서사를 형성한다.

승혁은 지원과 현승에게 발생한 틈을 더욱 벌리려고 노력하지만 두 사람의 강한 친밀감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경쟁 구도에서 빠져나온다. 현승은 열등감과 자존심으로 인해 발전시켰던 질투를 인정하고 지원에게 자신이 숨겨 온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하는 것은 지원이 이성에게 바라던 면모로 이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진화한 기본적인 대처 전략 중 한 가지인 자기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원은 변함없이 현승을 선택하게 되고 두 사람은 긴 결별 끝에 재회하게 된다.

한편, 시즌 3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푸름과 박하늘은 삼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들만의 독자적인 서사를 형성한다. 하늘 역시 재인과 민우처럼 푸름에게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푸름의 이상형인 마동석을 닮은 남성에게 질투심을 느낀다. 그가 기존 인물과 다른 점은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늘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그치면서 그들은 새로운 성격의 사랑과 우정 사이의 서사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에서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을 암시했던 준모와 도영 커플은 예측했던 대로 사랑을 이루어나가며 그들 역시도 경쟁 구도를 거치면서 확실한 관계로 규명된다. 도영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는 동아리 선배의 등장으로 그와 준모의 일시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삼각관계는 준모가 고백을 결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각성형 삼각관계는 인물의 감정을 깨닫게 하며 행동을 촉구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3) 위의 책, 273쪽.

4. 우연한 재회로 스토리의 확장을 꾀하는 삼각관계

시즌 4는 ‘우연’과 ‘재회’를 키워드로 서사를 진행한다. 시즌 4에서는 이전까지 중심 서사를 이끌어가던 현승과 지원의 커플이 주변 서사로 밀려나고 시즌 1의 패배자였던 재인과 윤 커플의 이야기와 새롭게 등장한 하늘과 지민 커플의 서사가 중심으로 떠오른다. 중심 서사의 이동은 곧 스토리의 확장을 의미한다.

먼저, 재인과 윤은 시즌 3에서는 이미 결별한 상태로 그려지며 서사가 잠시 중단됐다. 그들은 군입대한 윤이 제대하면서 ‘현대 사회의 사랑’이라는 수업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된다. 강의는 두 사람을 재회하도록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재인과 윤의 잠재적 경쟁자를 생성하도록 한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때는 각자 다른 파트너와 짝이 되어 수업 과제의 일환인 ‘더블 데이트’를 하는 순간이다. 과제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를 의식하고 상대방의 파트너에게 질투심을 느낀다. 그러는 사이 주찬은 재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할 의도를 보이는데 그의 욕망은 재인과 윤이 서로에게 미련이 남았음을 확인하면서 무력화된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으며 재회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경쟁 구도인 삼각관계는 두 사람에게 남아 있는 감정을 확인하도록 돕는 교량 역할로 작용한다.

한편, 재인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지민은 수시 때 우연히 자신을 도와준 남학생을 찾고 있다. 그녀는 ‘미친(미팅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그 남학생을 다시 만나기 위해 미팅이라면 어디든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드디어 지민은 미팅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남학생인 하늘을 만나게 되지만 그가 푸름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질투를 느낀다. 그러나 푸름이 지민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내비치면서 두 사람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도 친한 친구 사이가 된다. 즉, 경쟁 구도가 발현되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지민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민과 푸름이 치열하게 경쟁 구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하늘이 푸름에게 기습 뽀뽀를 한 스티커 사진을 지민이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하늘이 여전히 푸름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푸름과의 경쟁 구도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올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지민의 태도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된 하늘은 자신의 마음을 지민에게 전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삼각관계가 해소된다.

Ⅲ. 결론

<연애플레이리스트>는 스토리를 확장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새로운 캐릭터와 사건을 추가하여 그 세계를 넓혔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삼각관계 모티프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매 시즌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는 기존 캐릭터와 삼각관계로 얽히면서 기존 캐릭터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곧 이야기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스토리 내에 등장하는 삼각관계 모델은 총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틈입형 삼각관계, 일방향형 삼각관계, 폐

쇄형 삼각관계, 각성형 삼각관계가 그것이며 이들은 모듈 형식으로 진화한다.

첫째로 투입형 삼각관계 모델은 단단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한 커플 사이에 느슨한 틈이 발생하여 경쟁자가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시즌 1의 현승과 지원과 재인, 시즌 2의 현승과 지원과 승혁의 서사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일방향형 삼각관계 모델 한 인물이 그의 이성 친구에게 사랑의 감정을 지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겨 결국 짝사랑의 행렬이 이어지는 서사구조를 보인다. 시즌 1의 현승과 재인과 민우, 그리고 시즌 3의 하늘과 푸름과 마동석남의 서사가 있다.

셋째, 폐쇄형 삼각관계 모델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커플 사이에 경쟁자가 그들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 시즌 2의 재인과 윤과 민우와 준모와 도영과 위부 위협인 가난의 서사, 시즌 3의 현승과 지원과 승혁, 시즌 4의 재인과 윤과 주찬의 서사가 폐쇄형 삼각관계 모티프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각성형 삼각관계 모델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던 한 인물이 쟁탈자의 등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드디어 목표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서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시즌 2의 재인과 윤과 후배, 시즌 3의 준모와 도영과 동아리 선배, 시즌 4의 재인과 윤과 지민, 그리고 지민과 하늘과 푸름의 서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물 간의 삼각관계를 모듈화하는 전략은 캐릭터 간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스토리를 확장함에 이른다. 또한 매 시즌의 중심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도록 돕는다. 인물 간에 모듈화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이 스토리의 외연적 세계를 확장하고 중심 서사를 자연스럽게 다른 인물들로 이동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부담 없이 시리즈 서사를 이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각관계가 진화하면서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결국 스토리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모듈화된 삼각관계는 향유자가 서사구조 자체를 친숙하게 여기도록 하여 시리즈 서사를 향유하는 이들이 새로운 캐릭터가 그 서사를 이어가도 익숙하게 스토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 기초자료
플레이리스트, <연애플레이리스트> 시즌 1~4
- 단행본
로버트 맥키, 고영범 옮김,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민음인, 2002.
데이비드 버스, 전중환 옮김, 『욕망의 진화』, 사이언스북스, 2007.
데이비드 버스, 이상원 옮김, 『위험한 열정 질투』, 추수밭, 2006.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 이재현 옮김, 『재매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Expansion Model of Series Web Dramas : Focusing on modularization strategy using triangle motif in <Love Playlist>

Son, So-hee(First Author)* · Lee, Dong-Eun(Corresponding Author)**

The basic units that make up a story are characters, events, and backgrounds. The character leads the story through a series of events within the temporal and spatial background of the story and the journey to achieve his or her goals. Efforts to expand human stories are natural attempts because they can pursue economic profits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However, just as organisms continue to evolve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the story itself has organic properties and essentially has a desire to expand its world. The evolution of the story mainly occurs in old media according to media characteristics. But, the web drama <Love Playlist> shows an attempt to expand the world to the beginning of "Plyverse,"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media's characteristics.

<Love Playlist> expands the world by allowing humans to form a triangular relationship using competition and selection in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focusing on the feeling of jealousy evolved to protect their partners. The characters in the work vibrate love and friendship and establish various triangular relationships. Triangle relationships help establish new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change relationships between existing characters, and hinder the desire of the characters from realizing, while drawing the relationship in multiple layers and expanding the stor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strategy in which <Love Playlist> expands the story by using a triangular relationship motif as a module.

Key Words : Web Drama, Story World, Series Narrative, Story Motif, Transmedia Storytelling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과 박사 과정

**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부교수